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기평가, 그리고 청소년 비행 간의 관련성

엄순옥 · 이미애 · 문재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The Relationship among Domestic Violence, Self-Evaluation, and Teenagers' Deviation

Soon Ok Um · Meeae Lee · Jae Woo Moo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ABSTRACT

Background & Objectives: Recently, problems such as in-school violence of teenagers, gang fight, habitual drinking, smoking, running away from home and group isolation can be regarded as the most fundamental causes of teenagers' deviation. It is said that such fundamental causes are originated from their home, the base for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Methods: In this study, the data for 3,188 students studying in the 3rd grade at middle school, which have been obtained from the second year survey for the panel of the 2nd grade students in 2004 by to Korea Youth Panel Survey, have been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seems to be no difference between two genders for differences of average values. Regarding the analysi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ch related variables as domestic violence, self-control, self-worth, self-trust and family relationship (sociability), and teenagers' deviation, When variables increase, teenagers' deviation decrea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teenagers' deviation, physical violence is more related than lingual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teenagers' deviation is the highest. By studying the deviation of teenager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carrying out the regression analysis, physical violence influences, teenagers' deviation was greater. As self-control, self-worth and family relationship(sociability) increase, teenagers' deviation decreases.

* 이 논문은 엄순옥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지도교수: 이미애)인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음.

접수일: 2010년 4월 8일, 수정일: 2010년 5월 6일, 채택일: 2010년 6월 6일

[†] 교신저자: 문재우(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Tel: 031-450-5248, E-mail: moon1229@hansei.ac.kr

Regarding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study,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seems to influence teenagers' deviation greatly. Among various types of domestic violence, physical violence is analyzed to influence teenagers' deviation greatly. Self-control, self-worth and family relationship(sociability) increase, teenagers' deviation decreases.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teenagers' deviation and decrease the second conviction rat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ethod of decreasing the domestic violence. It is necessary for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to provide social support for teenagers.

Key words: Domestic violence, Self-control, Self-worth, Self-trust, Family relationship(sociability), Teenagers' devi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든 삶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마감한다. 가정의 소중함은 구태여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산업화와 사회변동의 여파로 가정이 붕괴되고 많은 문제를 가진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가정의 문제는 오늘날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가정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는 아마도 가정폭력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가정폭력을 부부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가 강할수록 폭력의 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전화'는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수가 한 해 7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김수희, 여성신문 2010년 1월 26일자).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은밀성·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커 폭력성향이 대물림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Graham-Bermann와 Hughes, 1998; Graham-Bermann와 Hughes 2003; 백현욱과 손현규, 2004; 장덕희, 2004; 김운희, 2006; 정기원과 서현숙, 2007).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연구한 Cornell and Gelles(198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어머니 폭행을 보고 자란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없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를 구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영희(1999) 역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부모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당대의 범죄행위를 넘어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요인, 가정폭력, 또래관계나 친구관계, 학교생활, 교사관계, 경제적 수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대중매체 등이 있으며, 최근 청소년 비행의 중요 위험요인으로 가정 내 발생하는 갈등이나 폭력,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주요 원인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점은 폭력의 은폐성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와 심각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나 가족공동체라는 신화와 맞물려 개인의 사생

활로만 치부되곤 하였다(김운희, 2006).

2008년도의 여성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전체가구의 50.4%로 두 가구 중 한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신체적 폭력이 30.7%를 차지하였다(여성부, 2008). 가정폭력은 주로 아내구타가 직접적으로 자녀구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김운희, 2006; 신선인, 2008).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70%에서 그 자녀도 학대를 받으며, 아내학대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아동학대도 심각해진다고 보고하였다(Jaffe 등, 1990). 이처럼 가정폭력은 성장하는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와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이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의 건강성과 가족간 유대감을 무너뜨리는 가정폭력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정폭력의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론화함으로써 가정폭력을 근절시킬 정책입안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 내 폭력 및 패싸움, 상습적 음주, 흡연, 가출, 집단따돌림 등 청소년비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적, 행동적 발달에 가장 근간이 되는 가

정에서 출발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논문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비행과 관련변수 즉 가정폭력,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도, 가족관계(친화도)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다른 선행변수(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도, 가족관계)들과 독립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보건교육의 확대와 복지부문의 협력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 하겠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중학교 2학년 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200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층화다단계표집을 활용하여 12개 특별시/광역시/시도별로 지역별 층화를 하고,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표본 n에 따라 학교수와 학교를 결정하고, 추출된 중학교 2학년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88)		
		구분	N	%
성별	남자		1,594	50.0
	여자		1,594	50.0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양친 모두 동거		2,818	88.4
	한부모(부 혹은 모)와 동거		69	2.2
	양친과 비 동거		23	0.7
	무응답		278	8.7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373	11.7
	고등학교졸		1,386	43.5
	전문대졸 이상		216	6.8
	무응답		1,213	38.0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537	16.8
	고등학교졸		1,825	57.2
	전문대졸 이상		153	4.8
	무응답		673	21.1
아버지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414	13.0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328	41.7
	농업, 임업, 어업,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1,105	34.7
	기타 (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167	5.2
	무응답		174	5.5
어머니 직업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204	6.4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038	32.6
	농업, 임업, 어업, 기능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282	8.8
	기타 (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1,503	47.1
	무응답		161	5.1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59	8.1
	101~299만원		1,160	36.4
	300~499만원		1,169	36.7
	500만원이상		382	12.0
	무응답		218	6.8
주거형태	자가		2,242	70.3
	전세		585	18.4
	월세		156	4.9
	기타		94	2.9
	무응답		111	3.5
합계			3,188	100.0

중학교 2학년 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표본으로 선정, 추출된 3,499명의 청소년 및 부모들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은 개인별 추적을 통한 2004년 11월 1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개별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중 전학이나 해외유학이나 이민, 연락두절, 장기입원, 거절, 대리응답, 운동합숙의 사유로 인한 조사 불가능 사례를 제외한 1~2차년도 계속 응답 사례수 3,188명(92.4%)의 표본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녀학생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현재 부모님과 응답자의 88.4%가 동거하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 직업의 경우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가 1,328명(41.7%), 어머니 직업의 경우 '기타(군인, 무직, 가정주부 등)'이 1,503명(47.1%)로 가장 많았다. 월 가구 평균소득은 '300~499만원'이 1,169명(36.7%)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자가'의 경우가 2,242명(70.3%)으로 가장 높았다.

2. 연구모형 및 변수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종속변수로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조사 2차년도 청소년 대상 설문문항에서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비행경험을 조사하였다. 비행 관련된 조사 설문문항은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경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 뜯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헐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14개 문항을 하나의 합성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

로 삼았다.

독립변수인 가정폭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패널조사 2차년도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질문에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설문문항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는 4개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변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조사 2차년도 청소년 대상 설문문항에서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련(친화력)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사항으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직업, 월평균 가구 소득, 주거형태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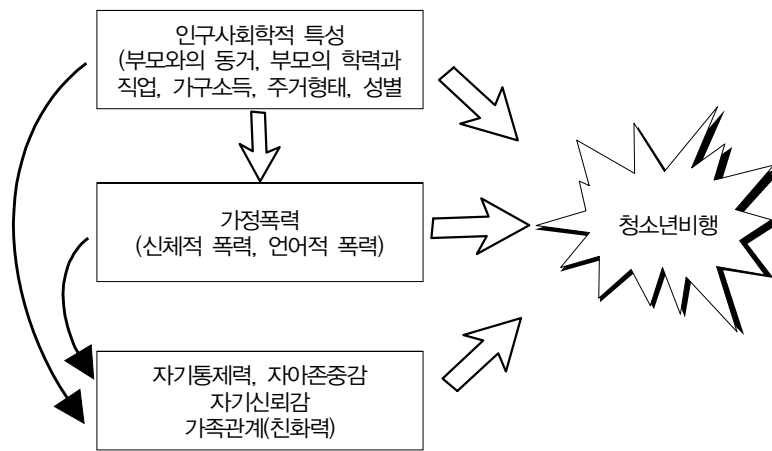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이론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를 <표 2>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처리는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정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문항들 간의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t-test와 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다중비교)을 실시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정폭력,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 청소년비행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평균치 차이 검증을 하였다.

<표 2>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구분	신뢰도
가정폭력	0.859
자기통제력	0.687
자아존중감	0.741
자기신뢰감	0.858
가족관계(친화도)	0.889
청소년비행	0.723



<그림 1> 연구분석모형

넷째, 일반적특성과 청소년비행과의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주거형태)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독립변수인 가정폭력을 부모 쌍방의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목적 및 자녀에 대한 신체적폭력, 언어적 폭력으로 구분한 후 관련변수(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와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의 차이

<표 3>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검증(다중비교)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의 차이

		(n=3,18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1,594	1.891	0.886	4.001	0.000**
	여자	1,594	1.770	0.821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양친 모두 동거	2,818	1.812	0.848	0.253	0.776
	한부모(부 혹은 모)와 동거	69	1.847	0.897		
	양친 모두 비동거	23	1.924	0.816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이하	373	1.973	0.899	3.965	0.019**
	고등학교졸	1,386	1.837	0.842		
	전문대졸 이상	216	1.902	0.813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이하	537	1.933	0.883	5.049	0.006**
	고등학교졸	1,825	1.820	0.842		
	전문대졸 이상	153	1.727	0.750		
아버지 직업	의회의원, 임직원, 관리자, 전(준)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14	1.758	0.878	2.873	0.035*
	농업, 임업, 어업, 기능, 기계조립종사자	1,328	1.791	0.839		
	기타(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등)	1,105	1.860	0.851		
		167	1.922	0.830		
어머니 직업	의회의원, 임직원, 관리자, 전(준)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04	1.757	0.862	0.632	0.594
	농업, 임업, 어업, 기능, 기계조립종사자	1,038	1.840	0.846		
	기타(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등)	282	1.805	0.850		
		1,503	1.812	0.855		
가구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59	1.960	0.809	6.188	0.000**
	101~299만원	1,160	1.870	0.882		
	300~499만원	1,169	1.755	0.836		
	500만원 이상	382	1.821	0.844		
주거형태	자가	2,242	1.795	0.854	2.971	0.031*
	전세	585	1.894	0.842		
	월세	156	1.924	0.830		
	기타	94	1.779	0.868		

* p < 0.05 , ** p < 0.01

성별의 경우 여학생(평균 1.770)보다는 남학생(평균 1.891)의 가정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버지 학력의 경우 중학교졸이하와 고등학교졸이 가정폭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어머니 학력 또한 학력이 낮은 그룹의 가정폭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1). 아버지 직업의 경우 기타 집단이 가정폭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5). 가구월평균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에서 299만원'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월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변수의 차이

t-test와 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 검증(다중비교)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관련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의 수준은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 주거형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자기통제력 평균이(3.378)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기타(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집단의 평균(3.34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구월평균소득, 주거형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이(3.302)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학력 또한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이(3.388)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이(3.37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집단의 평균(3.3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기타'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신뢰감의 경우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구월평균

소득, 주거형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3.433)보다 남자(3.512)의 자기신뢰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졸업 집단의 자기신뢰감 평균이(3.452)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자기신뢰감 수준이(3.592)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집단'의 자기신뢰감 수준이(3.551)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집단'의 평균(3.5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자가'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관계의 경우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구월평균소득, 주거형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3.288)보다는 여자(3.484)의 가족관계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가족관계 평균이(3.460)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 학력 또한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가족관계 수준이(3.474)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집단'의 가족관계 수준이(3.54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집단'의 평균(3.5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변수의 차이

(n=3,188)

구분	N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1,594	3.29	0.68	0.16	0.686	3.28	0.62	0.80	0.373	3.51	0.77	2.99	0.003**	3.29	0.65	-8.32	0.000**
	여자	1,594	3.30	0.69			3.25	0.64			3.43	0.71			3.48	0.68		
부모 님과 현재 동거 여부	양친 모두 동거	2,818	3.30	0.68	1.92	0.148	3.28	0.63	0.72	0.488	3.48	0.74	1.48	0.227	3.40	0.66	2.43	0.088
	한부모(부 혹은 모)와 동거	69	3.15	0.80			3.21	0.61			3.421	0.79			3.30	0.70		
	양친 모두 비 동거	23	3.25	0.60			3.17	0.73			3.23	0.77			3.15	0.50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이하	373	3.22	0.69	4.10	0.017	3.13	0.59	6.00	0.003**	3.30	0.73	6.33	0.002**	3.19	0.67	12.25	0.000**
	고등학교졸	1,386	3.26	0.66			3.23	0.61			3.45	0.75			3.34	0.67		
	전문대졸 이상	216	3.38	0.630			3.30	0.59			3.44	0.72			3.46	0.66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이하	537	3.23	0.65	2.40	0.091	3.16	0.62	10.06	0.000**	3.34	0.73	8.43	0.000**	3.21	0.65	16.76	0.000**
	고등학교졸	1,825	3.30	0.67			3.26	0.61			3.46	0.74			3.39	0.67		
	전문대졸 이상	153	3.34	0.70			3.39	0.60			3.59	0.70			3.47	0.70		
아버지 직업	의회의원,고위임직원, 관리자	414	3.32	0.68	0.49	0.692	3.37	0.66	5.17	0.001**	3.55	0.74	3.56	0.014*	3.54	0.65	11.58	0.000**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1,328	3.31	0.69			3.25	0.63			3.49	0.73			3.41	0.68		
	농업,임업,어업,기능	1,105	3.29	0.66			3.28	0.62			3.43	0.74			3.33	0.65		
	기타(군인,부직,주부,학생 등)	167	3.28	0.70			3.18	0.60			3.40	0.73			3.31	0.67		
어머니 직업	의회의원,고위임직원, 관리자	204	3.28	0.67	3.78	0.010*	3.35	0.64	7.85	0.000**	3.57	0.66	5.87	0.001**	3.52	0.61	5.69	0.001**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1,038	3.25	0.67			3.22	0.62			3.43	0.71			3.38	0.66		
	농업,임업,어업,기능	282	3.28	0.65			3.18	0.59			3.35	0.73			3.29	0.63		
	기타(군인,부직,주부,학생 등)	1,503	3.34	0.69			3.31	0.63			3.50	0.76			3.42	0.68		
가구 월평 균소 등	100만원 이하	259	3.30	0.63	2.61	0.050	3.19	0.59	9.27	0.000**	3.37	0.69	4.58	0.003**	3.23	0.67	11.53	0.000**
	101~299만원	1,160	3.27	0.69			3.21	0.61			3.43	0.75			3.35	0.66		
	300~499만원	1,169	3.34	0.67			3.32	0.64			3.50	0.74			3.44	0.65		
	500만원이상	382	3.33	0.70			3.36	0.64			3.53	0.72			3.49	0.69		
주거 형태	자가	2,242	3.33	0.69	6.34	0.000**	3.30	0.64	6.27	0.000**	3.49	0.73	3.85	0.000**	3.42	0.68	4.52	0.004**
	전세	585	3.23	0.63			3.19	0.59			3.39	0.75			3.31	0.62		
	월세	156	3.13	0.67			3.15	0.57			3.41	0.80			3.31	0.63		
	기타	94	3.30	0.75			3.31	0.57			3.41	0.71			3.44	0.62		

* p<0.05, **p<0.01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비행의 차이

<표 5>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및

scheffe 사후검증(다중비교)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

(n=3,18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1,594	1.054	0.100	0.038	0.970
	여자	1,594	1.054	0.099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양친 모두 동거	2,818	1.050	0.095	3.093	0.046*
	한부모(부 혹은 모)와 동거	69	1.063	0.093		
	양친 모두 비동거	23	1.096	0.104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이하	373	1.061	0.114	1.071	0.343
	고등학교졸	1,386	1.054	0.098		
	전문대졸 이상	216	1.050	0.091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이하	537	1.056	0.108	0.214	0.807
	고등학교졸	1,825	1.053	0.096		
	전문대졸 이상	153	1.052	0.094		
아버지 직업	의회의원, 임직원, 관리자, 전(준)문가	414	1.048	0.089	0.722	0.539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328	1.050	0.096		
	농업, 임업, 어업, 기능, 기계조립종사자	1,105	1.054	0.101		
	기타(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등)	167	1.057	0.106		
어머니 직업	의회의원, 임직원, 관리자, 전(준)문가,	204	1.055	0.107	1.887	0.130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1,038	1.057	0.102		
	농업, 임업, 어업, 기능, 기계조립종사자	282	1.045	0.084		
	기타(군인, 무직, 가정주부, 학생등)	1,503	1.048	0.092		
가구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59	1.062	0.107	1.093	0.351
	101~299만원	1,160	1.051	0.092		
	300~499만원	1,169	1.051	0.103		
	500만원 이상	382	1.054	0.088		
주거형태	자가	2,242	1.050	0.096	3.543	0.014*
	전세	585	1.054	0.100		
	월세	156	1.052	0.090		
	기타	94	1.083	0.124		

*p<0.05

분석결과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와 주거형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집단 간 청소년 비행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4. 변수 간 상관분석

먼저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비행과의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주거형태)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가정폭력을 폭력목격(신체적, 언어적),

폭력피해 당함(신체적, 언어적)으로 구분한 후 관련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친화도), 그리고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산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 이상 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가 주거형태와 청소년비행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관계에서는 부(-)의 영향을, 주거형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청소년비행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목격(신체적 폭력·언어적 폭력)과

가정폭력 직접피해경험(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과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주거형태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적 폭력 직접피해경험과 언어적 폭력 직접피해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성($r=0.716$)을 보였으며,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언어적 폭력 직접피해 경험($r=0.158$)보다는 신체적 폭력 직접피해 경험($r=0.200$)이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0.30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표 6>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	1.000										
V2	0.098**	1.000									
V3	0.017	0.046*	1.000								
V4	0.027	0.027	0.682**	1.000							
V5	-0.004	0.029	0.568**	0.636**	1.000						
V6	0.002	0.009	0.464**	0.581**	0.716**	1.000					
V7	-0.028	-0.062**	-0.203**	-0.209**	-0.236**	-0.243**	1.000				
V8	-0.022	-0.050**	-0.172**	-0.143**	-0.191**	-0.160**	0.219**	1.000			
V9	-0.030	-0.049**	-0.104**	-0.095**	-0.105**	-0.057**	0.073**	0.401**	1.000		
V10	-0.041*	-0.038*	-0.178**	-0.159**	-0.260**	-0.205**	0.168**	0.255**	0.265**	1.000	
V11	0.044*	0.046*	0.126**	0.136**	0.158**	0.200**	-0.302**	-0.118**	-0.026**	-0.153**	1.000

* $p < .05$, ** $p < .01$

주) V1: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V2: 주거형태, V3: 언어적폭력목격, V4: 신체적폭력목격, V5: 언어적폭력직접 경험, V6: 신체적폭력직접경험, V7: 자기통제력, V8: 자아존중감, V9: 자기신뢰감, V10: 가족관계, V11: 청소년비행

5.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주거형태,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폭력 직접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정(+)의 영향($\beta=0.137$)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1$). 그리고 청소년 비행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 자기통제력 변수는

부(-)의 영향(beta=-0.2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현재 동거 여부는 청소년 비행과 정(+)의 영향(beta=0.037)을, 가족관계(beta=-0.078) 변수는 청소년 비행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beta 값)를 보면 자기통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궁

극적 목적인 가정폭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신체적 폭력 직접경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과 현재 동거 여부, 자기통제력, 가족관계(친화도)가 좋을수록 청소년 비행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비행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beta		
(상수)	1.170	0.018	-	65.980	0.000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0.015	0.007	0.037	2.090	0.037*
주거 형태	0.001	0.002	0.011	0.604	0.546
언어적 폭력 목적	0.001	0.002	0.016	0.633	0.527
가정 신체적 폭력 목적	0.001	0.003	0.011	0.416	0.678
폭력 언어적 폭력 직접경험	-0.004	0.003	-0.043	-1.523	0.128
신체적 폭력 직접경험	0.013	0.002	0.137	5.256	0.000**
자기통제력	-0.037	0.003	-0.267	-14.378	0.000**
자아존중감	-0.003	0.003	-0.021	-1.073	0.283
자기신뢰감	0.005	0.003	0.037	1.902	0.057
가족 관계	-0.011	0.003	-0.078	-4.118	0.000**

Model Summary : F=40.033(p<0.000), R²=0.123, Adjusted R²=0.120

* p < .05, ** p < .01

IV.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력의 경우 학력이 낮은 그룹의 가정폭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기타(군인, 무직, 학생 등)집단인 경우, 어머니 직업의 경우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조사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와

'101만원에서 299만원'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월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높으며(정숙영, 1996), 낮은 경제력도 의미있는 변수였다(유덕순, 2001; 이금옥, 2008). 아버지가 직업이 없거나 경제력이 낮을수록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Saunders, 1984; 김지영, 2003; 최용과 황희숙, 2006), 결국 폭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이용하게 된다(장희숙, 2006).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며(김광일,

1985), 경제상태와 가정폭력은 상관관계가 적다는 연구(정복희, 1993; 김재엽, 1998)도 존재하는 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을 변인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부(2005)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교육수준, 경제수준, 직업유형 등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관련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차이는 자기신뢰감이나 가족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자기통제력에서는 아버지학력, 어머니직업, 주거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 모두 부모학력, 부모직업, 가구월평균, 주거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와 가구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비행 수준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분석결과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와 주거형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집단 간 청소년 비행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정기원과 서현숙(2007)의 연구 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정기원과 서현숙(2007)은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크기에 있어 성별 간의 차이가 없고, 비행수준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님과 현재 동거여부, 주거형태,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자기통제력, 자아

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폭력 직접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정(+)의 영향(beta=0.137)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01). 그리고 청소년 비행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 자기통제력 변수는 부(-)의 영향(beta=-0.2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현재 동거 여부는 청소년 비행과 정(+)의 영향(beta=0.037)을, 가족관계(beta=-0.078) 변수는 청소년 비행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beta 값)를 보면 자기통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방영자(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낮은 자기통제력 즉, 충동성으로 이어져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Rosenberg, 1989; Harter, 1998). Gottfredson 등(1990)은 비행에 자아통제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낮은 자아통제력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동일한 기회에 노출되더라도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비행을 저지르는 확률이 낮다는 자기통제론은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에 영향을 준다(이성식, 2005; 박영실, 2006). 그러나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이나 범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청소년들이 비록 낮은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비행에 대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친화력과 같은 가족 응집력 역시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있다(Chung 등, 2002). 즉 가정의 기능적 요인은 청소년 비행이나 부적응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은 비행과 관련이 있다(Tremblay 등, 1994; White 등, 1994; Block, 1995).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지만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님과 의 현재 동거여부가 주거형태와 청소년비행이 정(+)¹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관계에서는 부(-)²의 영향을, 주거형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의 경우 부(-)³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청소년비행에서는 정(+)⁴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목격(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가정폭력 직접피해경험(신체적폭력, 언어적폭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정(+)⁵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과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부(-)⁶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님과 동거여부와 주거형태에서는 정(+)⁷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적폭력 직접피해경험과 언어적 폭력 직접피해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성($r=0.716$)을 보였으며,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언어적폭력 직접피해경험($r=0.158$)보다는 신체적 폭력 직접피해경험($r=0.200$)이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간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0.30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은 방임보다 정서·신체 학대 또 학대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일수록 비행으로 이어지는 상관관계도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 폭력은 청소년 비행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기광도, 2005; 신혜섭, 2005; 김운희, 2006) 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많

은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에 당한 여러 학대가 청소년기 비행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정적 정서와 폭력성을 배움으로써 쉽게 폭력행위, 가출, 질서위반, 지위비행, 재산범죄에 연루되고, 이러한 부정적, 폭력적 행동특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하게 된다(Hughes와 Graham-Bermann, 1998; Graham-Bermann와 Hughes, 2003; 백현욱과 손현규, 2004; 장덕희, 2004; 정기원과 서현숙, 2007).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폭력경험을 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행동을 초래하며,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공격적이며, 더 많은 비행을 경험하게 된다(기광도, 2005; 정기원과 서현숙, 2007). 자녀를 때린 경험이 있는 부모 가운데 성장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맞은 적이 있는 사람이 65.5%로 그렇지 않은 사람(34.5%)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07년 11월 20일자).

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정서심리적인 충격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그로 인해 폭력행위 등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들로 하여금 쉽게 비행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회 환경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민수홍, 1996; 신선인, 2008).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2004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 2패널 2차년도 조사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표본으로 선정, 추출된 3,499명의 청소년 및 부모들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청소년은 개인별 추적을 통한 2004년 11월 1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개별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중 전학이나 해외유학이나 이민, 연락두절, 장기입원, 거절, 대리응답, 운동합숙의 사유로 인한 조사 불가능 사례를 제외한 1~2차년도 계속 응답 사례수 3,188명(92.4%)의 표본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정폭력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평균 1.770)보다는 남학생(평균 1.891)의 가정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성별의 경우 여학생(평균 1.770)보다는 남학생(평균 1.891)의 가정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버지학력의 경우 중학교졸 이하와 고등학교졸이 가정폭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어머니학력 또한 학력이 낮은 그룹의 가정폭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1$). 아버지직업의 경우 기타집단이 가정폭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가구월평균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에서 299만원'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는 '월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부모님과 현재의 동거여부가 주거형태와 청소년비행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관계에서는 부(-)의 영향을, 주거형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청소년비행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비행과 부모님과 동거여부, 주거형태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자기통제력, 자

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의 경우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이 증가하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감소한다는 것이며, 가족관계 친화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목격(신체적 폭력·언어적 폭력)과 가정폭력 직접피해경험(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넷째,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과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친화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정폭력 목격(신체적 폭력·언어적 폭력)과 가정폭력 직접피해경험(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높은 상관성($r=0.716$)을 보였으며,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언어적 폭력($r=0.158$) 보다는 신체적 폭력($r=0.200$)이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간에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0.303$).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여섯째, 가정폭력의 유형 중에서 신체적 폭력 직접피해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정(+의 영향($\beta=0.137$))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

일곱째, 청소년 비행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 자기통제력 변수는 부(-)의 영향($\beta=-0.267$), 또한 가족관계($\beta=-0.092$) 변수 역시 청소년 비행에 부(-)의 영향을, 부모님과 현

재 동거여부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학습을 통해 가정은 폭력에 대한 가치, 규범, 전략,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장임은 틀림이 없다. 가정폭력을 통해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폭력의 상호작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폭력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 비행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가족관계(친화도) 증진을 위한 방안이 범사회적, 범국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 비행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의 영역을 확대하여 가족 치료(상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의 자아성장 영역에까지 학교보건교육이 도입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가정폭력 목격(신체적 폭력·언어적 폭력)과 가정폭력 직접피해경험(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언어적 폭력 보다는 신체적 폭력이 더 높은 상관성을 보였음을 살펴볼 때 가정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이슈화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가정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부모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가족치료상담 등과 같은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 자체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청소년의 문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교육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을 위한 근본적 시각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종단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치 못하고 횡단적 자료로 분석함으로써 분석표집대상의 표본추출이 한정되어 있고 횡단적 표본으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종단분석에 관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요청된다.

참고문헌

1. 기광도.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범죄 간의 관계분석, *피해학연구* 2005;13(2):209-240.
2. 김광일.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1985;3:218-234.
3. 김영희. “제7차 1999년도 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노년기준비를 위한 생활교육과 산업포스터발표 아동가족학분야-부모의 청소년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 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생활과학회*, 1999.
4. 김운희.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6.
5.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98;35(8):133-155.
6. 김지영.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7. 민수홍.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8. 박영실. 청소년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기회요인의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9. 방영자.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 대학원, 1997.
10. 백현욱·손현규.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심리 연구* 2004;18(2):181-193.
 11. 신선인.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 가족복지학회지*. 2008;23:153-182
 12. 신혜섭. 가정폭력요인과 가족구조요인이 남녀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005;17(2):63-88.
 13. 여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2008.
 14. 여성부. 2004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2005.
 15. 유덕순. 아내 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 :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1.
 16. 이금옥.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행동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천안: 백석대학교 대학원, 2008.
 17. 이성식. 사이버상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5; 21:227-249.
 18. 장덕희.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4;11(3):65-91
 19. 장희숙. 지역사회 폭력남편과 가정폭력 범죄 행위자자들의 특성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58(4):141-168.
 20. 정기원·서현숙.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7;14(5):49-73.
 21. 정복희. 아내 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22. 정숙영.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수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6
 23. 최용·황희숙.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006;10:255~273.
 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피학대 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5. '폭력 남편보다 맞는 아내가 아이 더 때려' 연합뉴스 2007년 11월 20일자.
 26. 김수희. 여성의 전화 발표, 국가의 적극 개입 촉구 여성신문 2010년 1월 26일자.
 27. 통계청.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 2004. 서울: 통계청, 2004.
 28. Block J. On the relation between IQ, impulsivity, and delinquency : Remarks on the Lynam, Moffitt, and Stouthamer-Loeber. (1993) interpret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5;104:395-398.
 29. Chung IJ, Hawkings JD, Gilchrist LD, Hill KG, and Nagin DS. Identifying and Predicting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2002;76(4):663-685.
 30. Cornell CP. & Gelles RJ.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Urban an Social Change Review*, 1982;15(1):pp.8-14.
 31. Graham-Bermann SA, Hughes HM. Intervention for children exposed to interparental violence(IPV), assessment of needs and research prioriti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003;6(3):345-350.
 32. Gottfrdson MR, Hirschi T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33. Harter S.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98. 553-600
34. Hughes HM. and Graham-Bermann SA. Children of bettered women: impact of emotional abuse on adjustment and development. *Journal of Emotional Abuse* 1998;1(2):243-259.
35. Jaffe PG, Hurley DJ, & Wolfe D. Children's observations of violence: Critical issue in chil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planning.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990;35(6):134-143
36. Saunders DG. Helping husbands who batter. *Social Casework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1984;65:347-353.
37.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Wesleyan University Press Middletown. 1989.
38. Tremblay RE, Pihl RO, Vitaro F, and Dobkin PL. Predicting early onset of male antisocial behavior from preschool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4;51:732-739.
39. White JL, Moffitt TE, Caspi A, Bartusch DJ, Needles DJ, and Stouthamer-Loeber M. Measuring impulsivity and examining its relationship to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4; 103:192-205.